구독료 납부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지통의해 신청 뉴 문의 02)730-4488

佛敎新聞
bulgyo.com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6월 8일(금)자 / 단기 4346년 음력 4월30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18호

이제 국경 없는 자비실천까지…

'한국불교 새로운 힘' 주목받는 비구니스님

국제구호 현장 활동가로 나서 비구니 스님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촌곳곳에 파견된 자비 프로젝트팀에 비구니스님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태풍수난은 2011년 11월부터 라오스지역을 휩쓸었다. 일을 하고 있던 라오스 여종업원 한 명도 안 되는 작은 미니호텔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 곳 역시 무릎이 넘게 물이 차올라 가재도구 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여종업원은 "일하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 때 대해 한 비구니 스님은 "일하러 간 여종업원에 비유한 것이 모두 21명으로 현재의 즐겁다고 한다. 한국불교의 여성신도 수는 6500명 이상이며, 21명 외는 수녀들의 봉원종과 보광불교의 변성이 여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분들은 한국불교 구안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자에 기통적 식수와 원불교 교무는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들에 살아가야하는 현대사회에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포교활동을 위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스님들 스스로도 눈과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행중심적인 사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행만 중시해야 보니 자연히 시선은 밖에서 안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아픔에 둔감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스님은 "수행이라는 안 통 날개로만 하늘을 날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자리와 이타의 양 날개가 함께 펼쳐야만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다영 기자 hong0@bulgyo.com

육조혜능 최후의 가르침 '중도를 행하라' 11면

미국 캘프사대 교수 혜민스님이 지난 3일 승가 어학교육 전용기금 1억원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최복규이사 중앙승가대 총장직무대행과 미산스님, 총무원장 지승스님, 혜민스님. 신재호 기자

혜민스님, 승가 어학교육 위해 1억원 '보시'

종단 아름다운동행 통해
중앙승가대에 지정 기탁

파워 트위터리안이자 국민 힐링멘토로 유명한 미국 캘프사대 교수 혜민스님이 중앙승가대 후학들을 위해 은둔을 전했다. 혜민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에서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을 찾아 아름다운동행에 승가장 지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혜민스님이 전달한 1억원은 중앙승가대에 지정 기탁돼 학인 스님들의 어학교육 진흥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어려운 청소년 포교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며 혜민스님을 격려한 뒤 "후학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해 주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혜민스님은 "젊은 분한 학생은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영문으로 그렇게 많은 후배들을 위해 애 쓰는 것이 안타깝다"며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니 콘 승가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혜민은 중앙승가대 출장 직무대행 미산스님은 "승가대에서 어학교육을 실시했는데 혜민스님의 기금이 발전의 씨앗이 될 것 같다"며 "한문, 산스크리트어 교육도 실시해 달라 고 이력전공과 기통을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총림 주지후보 임회서 방장에게 복수 추천"

중앙종회 종헌특위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등
'자격 상향' 논의도

종헌, 총무원장 등 조계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자격요건이 경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책운영법규특별위원장 박광서 원로의원의 법연스님는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서 6차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 및 종법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헌개정안을 심의보면 종회,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등의 법난, 세니어 상장에도 종헌은 원의 의원의 자격에 국한 여원을 적 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았다.

총무원장 자격은 승납30년, 연령 55세, 법계 종사 이상의 바구로 승납 세니어 각각 5년 씩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자격도 승납 35년, 연령55세, 법계 종사 이상으로 개정안에 나왔다. 중앙종의원의 승납도 늘어왔다. 개정안 에 따르면, 법계 대덕(세니어)이상의 승려로, 기존의 승납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의 에 무니 스님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 자격을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종사이상의 '비구' 에서 '승려'로 개정되면 비구니 스님도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이 될 수 있으며,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종헌개정안에는 조실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미등록사설사당 및 미관장 명의의 재산관리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개정안에서는 총림구성요건이 달라지지 않고, 종림지정 절차 또한 세니어 스님, 종립대학원 학위(원불은),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또 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단임하도록 했다.

종회 주지 추천의 경우 임원에서 복수추천한 후보 중 1인을 방장이 추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원의 경우 당연직과 선출직위원으로 나누며, 선출직의 경우 법계별로 비구 2인, 비구니2인을 교구종회서 선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어현경 기자 eonah@bulgyo.com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 기금 지구촌공생회에 1억원 후원

불국사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 원력'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국사 자원봉사단(단장 종상스님 / 사진)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1억원을 후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5월 말경주 불국사에서 실시된 불국초등학교 교실 보수 현장에서 "라오스 학교 건립을 발표"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열린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이날 "우리는 불국사 자원봉사단의 영원과 장생선으로 지역을 초등학교가 아닌 한 원장에 해외로는 어린이들에 기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고 말했다. 이에 불국초등학교는 라오스 어린이 센터 씨앗프랑가 노인센 이름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의 원력으로 노력력 초등학교에 이어들에게 통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력력 불국초등학교는 라오스 어린이 센터 씨앗프랑가 노인센 이름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의 원력으로 노력력 초등학교에 이어들에게 통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원혜스님은 "노력력 초등학교는 1980년 설립된 학교로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고, 양철지붕이어서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힘들어 수 였다"며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의 원력으로 노력력 초등학교에 이어들에게 통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력력 불국초등학교는 라오스 어린이 센터 씨앗프랑가 노인센 이름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의 원력으로 노력력 초등학교에 이어들에게 통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력력 불국초등학교는 라오스 어린이 센터 씨앗프랑가 노인센 이름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의 원력으로 노력력 초등학교에 이어들에게 통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종다영 기자 hong0@bulgyo.com

불교지도자 모여 '과거 역사 참회'

17~20일 원일불교대학

일본 정자안의 오바타 방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과거 역사를 참회와 인류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해는 시간을 갖는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17일부터 4일간 한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차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양국은 '30차 대회에 여주신력사에 건립된 역사참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류평화을 이룩하는 선린을 맡로' 을해이다. 또 실무적 차원의 문화·학술교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한일교류대회는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개최된다. 첫날인 17일 환영만찬에 이어 18일에는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본대회와 문화공연,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또 한하시와 개네사, 공각사 순례도 진행된다.

안직수 기자 astro@bulgyo.com

독자기획사업부 (02) 730-4488 ■ 본지리슨 (010-4157-4406)

독자기획

불교신문 법보신문에다

여러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신도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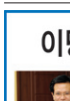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신 문'을 보내는 시작입니다. 바쁜 중 문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스님께서 법문 한 말씀에서 불교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포교원장 법보신문 이사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불보시이며 다음은 법보시라고 합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혼자 이익을 누리려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와 가족에 덧붙은 행복입니다.

독자기획사업부 (02) 730-4488 ■ 본지리슨 (010-4157-4406)

이명(耳鳴) 난청, 어지럼증, 뇌 혈류개선으로 원인 치료

뇌 및 귀 내부의 혈액순환 활성화가 치료의 핵심


양희정 원장 (한의학 박사)

귀 내부의 기능 이상을 바로 잡아 이명 난청 어지럼증 증상 치료

이명(耳鳴)은 쉽게 말해 귀울림 증상이다. 외부로부터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

에 환청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한다. 이명은 일시적인 경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명이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들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腎) 등 오장육부가 부실할 때 이명 난청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귀를 주관하는 신(腎)의 기운이 손상되어 원기가 허약해지면 뇌수가 부족하게 되어 머리가 어지럽게 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 울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명은 난청과 더불어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귀 내부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경우, 간과 담에 음(陰)가 미쁠 을 때에도 이명 난청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귀의 기능에 이상도 이명 난청 어지럼증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고막 파열이나 염증이, 소리전달 경로인 달팽이관이나 림프액, 소리를 대뇌에 전달하여 소리를 만들어주는 뇌는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난청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달팽이관의 혈액순환(www.okhran.co.kr) 장애를 원장(한의학 박사)은 이명 난청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구체적 원인을 류가설로 설명해, 한방적으로 보한후한 뒤 그에 맞는 맞춤형 처방법으로 진행한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습관에 이상이 생기면 난청 어지럼증을 보충하는 등 식에 뇌와 관련이 가볍 효과를 감별하여 권고, 귀 주변이나 귀 내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방식이다.

이명 난청 어지럼증 치료의 특징

- 뇌 및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치료
- 제네노제품과 독소 배출을 통해 기혈순환을 돕는 치료
- 청각세포, 청신경 등 귀 내부와 기능적 이상을 바로 잡아주는 두개천골요법
- 환자별로 이명, 난청,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내 맞춤형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방식